

# ‘풍년 기원’ 완도 명품 다시마 초매식 열려

첫 위판가격 kg당 9514원... 올해 3000여톤 생산 예상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초매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완도읍일수협 위판장에서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대행과 어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마 풍년 기원 초매식이 열렸다. 완도는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다. 이날 초매식에는 해양 안전과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것에 이어 위판을 개시했다. 다시마 첫 위판 물량은 2851kg으로 위판 가격은 kg당 평균 9514원, 최고 1만5000원 등 예년보다 높게 거



완도군수 권한대행 강성운(가운데)이 다시마 채취는 5월부터 7월 초까지이며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생산량은 3000여의 평년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어민 소득은 총 230억여원대로 추산된다. 다시마는 갈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

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은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완도 해저는 바다 정화 작용과 영양 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전복과 해조류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도 금일읍, 약산면, 신지면 등 20여개 다시마 생산 어가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MSC를 획득했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다시마 수확 철이 되면 일손 부족이 문제였는데, 지난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으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며 “어가 인력난 해소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이두식 기자

# 무안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

코로나19 따른 피해·애로 건의사항 등 청취

무안군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2022년 2분기 관내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시책으로 군 팀장급 이상 직원이 관내 중소기업 1개 업체를 전담해 기업이 체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상담을 통해 기업의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다. 올해는 팀장급 이상 직원 206명이 참여해 관내 206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군은 37건의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주로 접수된 애로·건의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 16건(43%), 내·외국인 인력수급의 어려움 7건(19%), 각종 보조사업 요청 및 자금지원 협조 등 6건(16%)이다. 이들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판로개척 등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했고, 이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상담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박태연 기자

# 영암 청렴슬로건 선정·청렴교육 추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등 부패방지 청렴교육

영암군은 지난 24일 최고 수준의 청렴영양 실현을 위한 202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따라 군 청렴슬로건 선정 및 청렴교육을 추진했다. 신진섭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청렴특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행위 및 부정청탁 금지법 등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초 부서별로 제출받은 청렴슬로건 45건 중 공직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최종 3개 안이 선정, 배너로 제작됐으며 군 및 읍면의 청사 입구에서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도록 게시할 계획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 강진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농작업자 관리 철저’ 당부

강진군은 최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정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기위·톱 등 소형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 도구 수시 소독,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과 외부 활동용 구별 사용, ▲위생뿔신·일회용 부직포 작업복 및 장갑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특히, 적과에 사용하는 가위는 나무한 그루 작업을 마치고 반드시 소독한 후에 다른 나무를 대상으로 작업해야 하며 과수원 경영주는 과수원 내부 곳곳에 알코올 등 소독약제 및 소독용품을 비치하여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일시, 과수원 출입자, 작업내용, 소독 여부 등을 기록한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는 5~6월 농작업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화상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예찰과 소독약 보급으로 사전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 시 수시로 소독하고,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사전방지에 힘써 주시기”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신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백서’ 발간

전국 최초 제작... 햇빛연금 실현 위한 여정 집대성

신안군은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 기록을 집대성한 공식 백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서는 총 3권 2606쪽 분량으로, 사진으로 된 화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및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추진 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됐다. 백서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 과정에서 발생한 민·관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대응 및 군민과의 소통 과정 등이 담겨있다. 또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백서는 앞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정책 추진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은 물론 햇빛연금 실현을 기록한 신안군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사례



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모델로 널리 알려지고, ‘지속가능한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본보기와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안=박정래 기자

# 해남 ‘적극행정으로 규제해소’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확대 ‘안전한 귀갓길 보장’

해남군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 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총 403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제도’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학원)에서 야간 귀가시 1,0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가지까지 1km를 초과하는 학생에게 월 최대 30만원(송차, 복평, 문내, 화원은 최대 50만원)까지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해남군은 기존 조례 규정상 방학기간 중에는 학원학습, 야간학습 종료 후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개

정해 학생들이 연중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원거리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룻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비 지원금액을 높이고, 방학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 진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적극 홍보

내년부터 시행...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사전준비 나서

진도군이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5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집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되어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담례품 개발, 전달품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도권 주민,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진도만의 특색있는 홍보 마케팅과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담례품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것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90분의 기적

# 진도와 제주를 잇다

coming soon...

## 초쾌속카페리 "산타모니카"

2022년 5월 7일 취항!

총톤수 3500톤 · 속도 42노트 · 여객정원 606명 · 차량 86대

산타모니카 운항시간표

구분	진도출항	추자입항/출항	제주입항	제주출항	추자입항 / 출항	진도입항	선석
월 ~ 일	08:00	08:45 / 09:10	10:00	11:30	13:00	23번	
	14:30		16:00	17:30	18:20 / 18:45		19:30

\*정기취항: 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오시는 길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01 [홈페이지](http://www.seaferry.co.kr) | www.seaferry.co.kr [문의전화](tel:1577-3567) | 1577-3567